OPP필름, 중국산 반덤핑 조사

무역위, 인도네시아·타이산도 포함 … 최근 수입량 2배 급증

무역위원회는 중국, 인도네시아, 타이에서 수입한 OPP(Oriented Polypropylene) 필름에 대해 덤핑수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월24일 발표했다.

OPP필름은 무색·무취에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필름으로 식품·담배·의류의 포장재와 앨범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3272억원에 달했다.

중국, 인도네시아, 타이 등 3개국산 수입물량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11.5%에서 2011년 24.2%로 2배 이상 뛰었다.

이에 따라 국내기업인 영화학, 필맥스 등이 덤핑여부 조사를 신청했다고 무역위원회는 밝혔다.

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예비조사 후 예비판정을 내리며 이후 3개월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해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.

이와 함께 경쟁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OPP필름을 생산한 후 해외에 수출하려는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1/24>